

Panasonic

| 파나소닉 창업 10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



파나소닉코리아가 파나소닉 창업 10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지난 3월 7일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 다빈치볼룸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파나소닉코리아 딜러와 협력사 등의 관계사를 비롯해 주요 그룹 대표와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 및 선수들, 후원 선수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파나소닉의 100주년을 축하했다.

파나소닉은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故 마쓰시타 고노스케 옹이 1918년 3월 7일 마쓰시타 전기기구 제작소를 설립하여 지난 100년간 ‘공존공영’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을 돕는데 헌신해 왔다. 대다수 기업의 수명이 10년을 넘기 힘든 요즘, 파나소닉과 같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파나소닉은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의식하에 기업은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 공헌의 대가 = 이익’이라는 일념으로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 다빈치볼룸 로비



기념촬영 중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파나소닉코리아(주)는 지난 2000년 한국 법인 설립 이래 'A Better Life, A Better World'를 기업슬로건으로 정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믿음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및 가족친화기업 조성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존공영' 정신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오

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출산 장려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에게 꿈 심어주기 운동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체제 운용, 100세 국민구강건강 캠페인 등을 연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프로 선수를 꾸준히 후원하여 파나소닉과 선수들이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프로골퍼 박인비, 유소연 선수와 대한탁구협회, 탁구신동 신유비 선수 등을 후원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여러 스포츠 후원 활동을 해오기로 유명하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과 서울 하계올림픽에서 Top 스폰서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도 월드와이드 공식 파트너로서 영상 연출과 시스템 운영



CSR 홍보대사 시상식, PR 챌린지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봉사활동 관련 기획안을 작성, 실행까지 하는 프로그램

파나소닉 창립 100주년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



지난 CES 2018에서 파나소닉은 파나소닉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시했다



A Better Life, A Better World



인도에 최초
제조회사 설립
1972



마쓰시타 고노스케
본격적인 중국 사업체
방문 시작
1979



Japan Prize
Foundation 설립 진행
1985

1973
중동에 최초
제조회사 설립

1981
기업 사명 시행
50주년

1987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십 협약 체결

1989
마쓰시타 고노스케 타계

2002
5개 그룹회사
소유권 100% 인수

Panasonic
Ideas for Life



글로벌 브랜드
"파나소닉"으로 통합
2003

2004
마쓰시타 일렉트릭 위스와
포괄적 파트너십 시작



"에코 아이디어" 선언
2007

2008
통합 제품 브랜드
"파나소닉" 아래
파나소닉 주식회사로 통합



마쓰시타 일렉트릭 위스와
신요 전기 소유권
100% 인수
2011

2013
4개의 사내 기업에 따라
새로운 부서별 시스템 시행
BioB 준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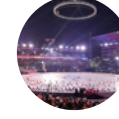
스마트 타운 후지사와 개발
CRE솔루션 실행으로 후지사와
지속 가능한 스마트 타운(SST) 출범
2014

2018

100

창립 100주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0년간 올림픽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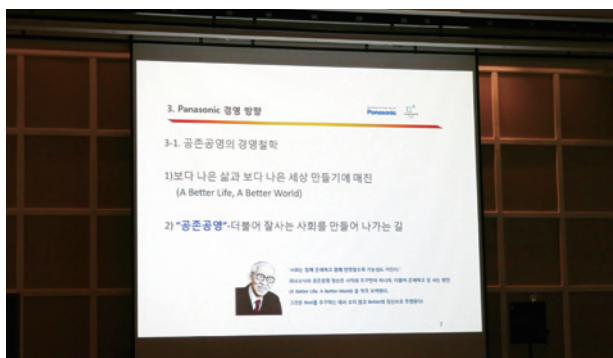
제22차 파나소닉 CSR 투어 성료, 경상북도 지역 아동·청소년복지센터 14곳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러리스 카메라 등 파나소닉 상품과 생활품을 기부하였다



2018 상반기 포토아카데미, CSR 투어를 진행하였던 보육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나소닉코리아 본사로 초청하여 카메라 이론 및 촬영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의 솔루션을 포함해 영상, 음향기기를 지원하였다. 특히 개폐막식의 영상 연출을 위해 파나소닉의 3만 안시의 프로젝터 82대를 설치하였고, 방송센터의 설계 및 설비로 전 세계로 국제신호를 송신하였고, 감시카메라 1,100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올림픽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장의 전체 전광판과 파나소닉의 안마 의자 등을 지원하는 등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림픽의 감동과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파나소닉 창업 100주년 기념식은 총 3부로 1부에서는 '가치를 말하고 미래를 연주하다'를 주제로 축하음악회가 열렸고, 2부와 3부에서는 '함께 나누는 밤'과 '파나소닉 모두의 밤'으로 파나소닉과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로 진행되었다.



노운하 대표는 파나소닉의 공존공영 경영철학을 소개했다



100주년 기념 음악회의 마지막으로 파나소닉이 후원하는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오 솔레 미오'가 공연되었다



파나소닉의 100주년을 축하해주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장부 장관



파나소닉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배 제의를 하는 문국현 한술섭유 대표



◀올림픽 선수단에게 수여된 특별공로상
▶올림픽 자원봉사자에게 수여된 특별공로상



다자녀 출산 가정 대표로 수상하는 의령 7남매 가족



파나소닉과 지난날을 함께했던 여러 딜러사에게 주어지는 딜러 공로상 시상

1부 시작에 앞서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는 파나소닉의 경영 이념과 철학,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자 하는 공존공영의 이념 아래 사회공헌을 기업 운영의 최대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삶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기념 음악회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로 명성을 올린 서희태 지휘자가 라푸즈 오케스트라와 함께 파나소닉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하여 연주하였다. ‘과거’로는 100년의 역사 속에서 산업계를 지탱해 온 파나소닉의 기업 정신을 담아 클래식 명곡인 ‘봄의 소리 왈츠’를 연주했고, ‘현재’로는 공존공영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파나소닉의 경영철학을 담아 공연했다. 연주는 파나소닉 후원의 ‘난파소년소녀합창단’과 ‘성정음악공쿠르’로 유명한 성정문화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박정원 교수와 바리톤 고성현 교수, 문태국 첼리스트가 협연하였다. ‘미래’로는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파나소닉의 의지를 담아 12살의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 양의 ‘지고이네르바이젠’과 모든 연주자들이 ‘오 솔레미오(오 나의 태양)’를 협연하여 파나소닉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추구했다.

이어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축사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단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하의 영상을 전했고,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의 건배 제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파나소닉 100주년 시상식에서는 올림픽 부문으로 특별공로상에 이승훈 선수와 황대헌 선수, 차민규 선수, 김예진 선수가 수상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자원봉사자들도 역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다자녀 출산 가정 대표로 의령 7남매 가족들도 초청되어 수상을 하였고, 딜러 공로상으로 그동안 파나소닉과 함께한 여러 딜러사가 수상하였다. 📺

자료제공 : 파나소닉코리아